

경동, 알뜰주유소 본격 시동

지경부, 리터당 60-100원 저렴 ... 신·재생에너지 강화

알뜰주유소 1호점이 개장했다.

지식경제부는 경기도 용인에 국내 첫



알뜰주유소가 들어섰으며 주변 일반주유소에 비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60-100원 가량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12월29일 발표했다.

아울러 12월29일 오전 9시 근처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44원, 경유 1793원인 반면 알뜰주유소 1호점의 예상 판매가격은 휘발유 1843원, 경유 1694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석탄 채굴·판매기업인 경동이 에너지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앞으로 그린석탄 및 전기자동차 충전 등도 가능한 종합에너지판매소로 알뜰주유소의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동의 손달호 회장은 “경주, 부산, 강원 등에서 10곳이 추가로 개점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유연탄을 확보해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연탄에서 벤젠(Benzene) 등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한 크린코울, 이산화탄소를 최소화한 그린코울, 목재펠릿(우드펠릿)을 포함한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가 면세유 공급금액이 1조원이 넘는데 비해 크린코울 및 그린코

울은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02>